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팀 이공회

"상락원은 내 집 같아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이공회가 3월8일 상락원 장애 아동들에게 목욕 봉사를 하고 있다.

"이젠 내 집 같아요. 계속 다니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3월 8일, 자신의 집처럼 편안히 다리를 뻗고 앉아서 아이들 빨랫감을 정리하는 사람들.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의 집 서울 성북구 상락원(원장 지웅)에 온 자원봉사팀 이공회 회원들이다.

이공회(팀장 배순희)는 매주 화요일 오전 상락원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봉사활동 일과를 시작한다. 이제 주부 경력으로 치자면 '베테랑' 엄마들이라 아이들 먹일 반찬준비는 늘 정성스럽다.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끝내야 속이 시원하다는 배순희(44)팀장과 이공회 회원들은 활동을 끝낸 자리를 항상 말끔하게 정돈해 상락원에서 가장 반기는 봉사팀 중 하나다.

상락원에 드나들다보니 주위 사람들에게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편견은 없었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이공회 회원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오히려 뭔가 좀 더 해 줄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는 황옥순(67)보살의 말에 원영화(64)보살과 장숙자(62)보살도 한마디씩 거든다.

"애들한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올 수 있겠어요. 더 애틋하고 귀엽지요."

사실 그렇게 귀엽게 여기던 아이 중 한 명이 6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이공회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다. 아이를 잃은 마음의 상처는 컸지만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계속 봉사활동은 나와야 했다. 이공회 회원들은 다시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아이가 없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루만진다.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힘닿는데 까지 도와야지요."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성인용 기저귀 · 세탁기 후원해 주세요

이공회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락원에는 중증장애아동 8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중증장애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이 많아 늘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하다. 이공회 황옥순 보살은 "생필품 뿐만 아니라 아이들 빨랫감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지금 쓰고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 대신 대용량 가전 제품이 필요한 형편"이라며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호소했다.(02)921-6410

안국선원 군포교 적극 나섰다

6일 논산훈련소서 위문법회 · 포교기금 전달
군불자에 '현대불교' 보내기 법보시도

3월 6일 논산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재)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주관하는 위문법회가 열렸다. 허평환 훈련소장(육군 소장), 정경조 참모장(육군 준장), 변형균 신도회장(27연대장럽酉 ,박동진 주지법사를 비롯해 3천여 훈련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수불 스님의 특별법문과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의 난타 공연 등으로 진행돼 훈련병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마주한다면 이를 극복해낼 의지가 절로 샘솟을 것"이라며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을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안국선원이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군포교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눈길을 끈다. 그동안 군법당 건립 등을 후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5천만원의 군포교기금을 조성해 군법당과 군법회를 지원하고 나선 것. 올 포교기금은 신병교육부대인 육군 제2훈련소와 장교양성기관인 육군 3사관학교, 국군불교총신도회 등에 전달했다.

안국선원은 또 군포교 일환으로 군장병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보시 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로 안국선원은 신도회(회장 무량심)가 주관이 되어 3월부터 1년간 매월 1천부씩 현대불교신문을 군부대에 발송하기로 했다.

무량심 안국선원 신도회장은 "젊은 불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안국선원의 뜻이 모든 사찰과 불자들에게 확산돼 함께 군포교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02)732-0772 박봉영 기자

안국선원은 3월6일 논산 육군 제2 훈련소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앞줄 왼쪽 네번째)이 법회에 참여한 육군 훈령병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모습.

"한국불교 알리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美 새란드로에 문 연 전등사 불서 등 자료 없어 발 동동

흔히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미국. 그러나 현지생활을 하다보면 의외로 부족한 게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감로수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배울 장소와 이에 필요한 물자들.

2월 5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새란드로에 문을 연 전등사(주지 보광)도 이런 경우다. 보광 스님은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며 힘이 닿는 대로 자료를 챙겨갔지만 곧 부족함이 드러났다. 스님은 "청소년 한글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관련서적, 테이프 등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료를 구할 길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지공예 전문가로 한국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던 보광 스님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교를 준비하고 있다. 스님은 간신히 아파트를 얻어 작은 법당을 마련했지만, 조만간 개인주택을 얻어 여법한 법당을 꾸릴 생각이다. 한지공예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선지문화원'도 올해 내로 개원할 계획이다. 스님은 "불자들의 작은 정성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을 겪는 미국 불자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전화: 1-510-483-3301 강유신 기자

'나눔의 초파일 행사' 준비 한창

올 부처님 오신날 봉축표어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다. 올해 봉축행사는 동체대비의 자비정신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사들이 많다.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2개월 여 앞두고 봉축위원회 자원봉사단원들이 3월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3000여 각 사찰과 단체들에게 보낼 봉축 관련 각종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김일리 김미래 최명심 최점심 최민경 이대섭 안창용 김소연 이승환 일군 박선옥 박성준- 838,410원
우진궁- 20,000원

총 누적금액: 38,833,47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